

경찰관의 탄력성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미치는 영향: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이 지 현

송실대학교 / 석사

박 승 민[†]

송실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경찰관의 탄력성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556명의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v3.5)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와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고,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탄력성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탄력성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탄력성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의 PTSD에 대한 상담적 함의와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경찰관,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 본 연구는 이지현(2019)의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직무상 외상 사건을 경험한 경찰관의 탄력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지도교수 박승민)’를 바탕으로, 추가자료 분석을 통해 수정·보완된 것임.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상담심리학회 차세대 연구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 : 박승민, 송실대학교 기독교학과 상담심리 전공, (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Tel : 02-828-7199, E-mail : subiya99@ssu.ac.kr

경찰의 기본 책무는 범죄와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다(경찰청, 2020). 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은 정작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생명의 위협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협을 느낄 만큼 개인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을 외상성 사건(traumatic event)이라고 한다(APA, 2013).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 상처, 즉 외상(trauma)이 남게 되는데 심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충격적인 경험이 현재의 삶에 지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이하 APA)에서 발간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5)」에는 외상 이후에 다양한 심리적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고 명명하며 정신장애로 분류하고 있다(APA, 2013). 현재 DSM-5는 PTSD로 진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1)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 (2) 외상성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 (3) 외상성 사건이 가족, 가까운 친척 또는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됨, (4) 외상성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지나친 노출의 경험(예, 아동 학대의 세부 사항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찰관 등)”과 같은 네 가지 경험 방식 중에서 한 가지(또는 그 이상)에 해당해야 함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다(APA, 2015: 290). 기존의 DSM-IV와 비교했을 때 DSM-5에서는 직업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며,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외상성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사건, 사고를 다루면서 직접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친한 동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으며, 범죄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대면하여 혐오스러운 사건의 내용을 청취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은 모두 PTSD를 유발할 수 있는 DSM-5에 기술된 외상성 사건의 경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관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주요 화제 중 하나가 바로 PTSD이다(이지영, 임재호, 서수연, 2017). 2012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조사 결과, 응답자의 37.2%가 PTSD 고위험군에 속하였다(고영선, 2012).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국가는 2012년 8월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시행하여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찰 조직은 2014년부터 PTSD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음동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경찰청, 2018년 9월 18일). 경찰 직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외상성 사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경찰관에게 PTSD 발병 소지가 높음을 시사한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PTSD 발생률은 약 8.9-41.1%로(권용철, 2012; 김자혜, 김정규, 2013; 신성원, 2012; Lee, Kim, Won, & Roh, 2016), 일반인의 경우 역학 조사 결과 평생 유병률이 1.5-4.7%(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2017; 은현정, 이선미, 김태형, 200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경찰관의 PTSD 발생률이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직무상 외상성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로 인한 누적된 영향이 더 심한 PTSD를 가져올 수 있다(이옥정, 지영환, 2010; 한보람, 김정규, 2014; Clair, 2006).

경찰관이 PTSD를 겪게 되면 자기 자신과 나아가 국민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경찰관의 자살 원인은 우울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신성원, 2017),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우울과 PTSD 간의 긴밀한 관련성을 고려하면 PTSD가 자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남병습, 김사라형선, 2017; 배점모, 2013). 한편 경찰관의 PTSD는 소진(burnout)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황인희, 이영호, 2012). 정서적 고갈,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 등으로 나타나는 소진 상태는 업무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결국 주민에게 적절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을 빚게 만들 수 있다(신용일, 2019). 이처럼 경찰관의 PTSD는 경찰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주제로, 경찰관의 PTSD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는 경찰관의 PTSD 증상에 대한 이해와 예방, 치료적 개입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PTSD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기준으로 할 때, 총 57편이 이루어졌다(박경련, 2020). 이 중에 PTSD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PTSD 실태 파악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업무적 특성과 같은 요인들을 주로 다루었고, 이후에는 외상성 사건의 경험이나 우울, 불안 등과 같이 PTSD를 유발

하거나 증상 수준을 높이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김세경, 이동훈, 장벼리, 천성문, 2015; 박경련, 2020).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결함이나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며, 이러한 요소가 특정 정신장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질병모델(disease model)의 관점을 취한다. 이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들은 정신장애의 발병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치료적 개입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똑같은 외상성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찰관에게서 PTSD가 나타나지는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이 경찰관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음, 외상성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다루는 면에서 경찰관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인차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으로, 먼저 각 개인이 갖고 있으나 개인에 따라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강점 또는 긍정성에 주목하였다. 질병모델의 대안으로 Seligman(2002)이 제안한 긍정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개인의 강점이나 능력 등과 같은 긍정성 요소가 정신장애의 치료와 더불어 예방 및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 관점을 적용하면,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심리적 요소들에 대한 자기 인식과 발휘 측면에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긍정성을 잘 인식하고 발휘하는 과정이 앞으로 맞닥뜨릴 외상성 사건 이후의 대처와 자기돌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보호기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개인차와 관련된 또 다른 측면

으로, 경찰관이 몸담고 있는 직무환경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심리사회적 모형으로 PTSD를 설명한 Green, Wilson과 Lindy(1985)에 의하면,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그 사건을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 맥락의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심리적 적응 또는 부적응과 같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적용하면, 경찰관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긍정적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식을 경찰관 스스로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직무 수행상 외상성 사건을 필연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를 잘 다루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PTSD 가능성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측면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함께 탐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이 외상성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견디고 극복하여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데 관련되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 특성 중 하나로 ‘탄력성’을 상정하였다. 그동안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에서 PTSD의 보호요인으로 밝혀진 개인적 변인에는 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심리적 복지감, 자율성 등이 있다(김세경 등, 2015; 박경련, 2020; 이정현 등, 2015). 이 중 탄력성은 외상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많은 사람이 PTSD를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Friedman, Resick, & Keane, 2007; Layne, Warren, Watson, & Shalev, 2007). PTSD의 보호요인으로서 탄력성의 역할은 치료보다 더 중요한 예방의 측면에서 상담 실제적으로 큰 중요성을 지

닌다. 탄력성은 개인이 역경이나 극도의 스트레스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도 잘 적응해 나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으로(Masten, 2001), 심리적 외상을 남길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되어도 비교적 안정되고, 심리적, 신체적 기능이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Bonanno, 2004) 또는 “삶에서 중대한 변화 또는 역경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Luthans, 2002: 12)”으로 정의된다. 이들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 즉 역경과 적응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경찰관의 PTSD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탄력성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PTSD를 겪을 가능성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노선미, 김은아, 2017; 임혁, 박외병, 2015; Janssens, van der Velden, Taris, & van Veldhoven, 2018; Lee et al., 2016). 이처럼 경찰관의 PTSD에 대한 탄력성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작용 기제를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Vogt, King과 King(2007)은 PTSD의 발달 경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논의를 위해 여러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탄력성이 다른 변인과 어떤 관계 양상을 보여 PTSD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은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하는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가에 따라 이후 적응도가 달라진다(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여러 연구에서 탄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협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의 부정적인 여파에

유연하고 더 적절한 대처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고은, 양난미, 2016; 박은혜, 이민규, 2016; 장경문, 2003; Agaibi, & Wilson, 2005). 이는 탄력성이 외상성 사건에 노출된 개인으로 하여금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Allen, 2010). 그렇다면 탄력성과 인과관계를 맺어 PTSD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적응적인 대처 기제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진다. DSM-5에서도 PTSD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외상 후 인자 중 부적절한 대처를 명시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APA, 2013).

Amirkhan(1990)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처방식을 크게 문제해결 중심, 회피 중심, 사회적 지지 추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 문제해결과 회피 중심의 대처는 개인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방식(전경규, 김교현,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1994)을 의미한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 두 가지 대처방식과 PTSD의 관계를 살펴본 유재두(2013)의 연구에서, 문제해결 중심과 회피 중심 대처는 모두 PTSD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김자혜와 김정규(2013)의 연구에서도 두 가지 대처방식 모두 외상성 사건 경험과 PTSD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직무상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경찰관의 대처방식에 있어 기존의 것과는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Folkman(1997)은 문제초점적 대처와 정서초점적 대처로 구성된 Lazarus와 Folkman(1984)의 모델에 ‘의미초점적 대처(meaning-focused coping)’를 새롭게 추가한 개정된 대처 과정 모델을 제안하였다. Folkman

(1997)은 스트레스 사건에 당면한 개인이 문제 초점적 또는 정서초점적 대처방식을 취한 결과 긍정적인 상태를 이루지 못한 경우, 의미 초점적 대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긍정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문제해결 중심이나 회피 중심의 대처가 경찰관의 PTSD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의미초점적 대처방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Park과 Folkman(1997)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서 의미부여(meaning-making)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찰관은 특수한 상황, 즉 일 맥락에서 외상성 사건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자신의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경험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이 돈을 벌고 경력을 쌓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기를 원한다(Šverko, & Vizek-Vidović, 1995). 여기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중요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탁진국 등, 2015). 따라서 ‘일의 의미’는 자신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며 일을 대하는 방식으로서 주관적인 해석에 기반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Wrzesniewski, & Dutton, 2001). Steger, Dik과 Duffy(2012)는 일의 의미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의 의미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의 의미를 자각할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불안이나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등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일 관되게 확인되었다(김근호, 장지현, 김성혜, 조아로, 장원섭, 2019; 이정선, 서영석, 2014; Allan, Dexter, Kinsey, & Parker, 2018; Chadi, Jeworrek, & Mertins, 2016). 경찰관과 같이 고위험 공무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자인과 강경아(2015)의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를 자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혜원, 유재은, 우정희(2017)가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일의 의미와 직무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김사라(2019)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극복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이나 자부심 등이 직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열거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일의 의미가 경찰관의 PTSD에 부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앞서 Folkman(1997), Park과 Folkman(1997)이 주장한 개인적 차원의 대처방식으로서의 의미부여 과정을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상황에 대입해 볼 때, 일의 의미는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적응적인 대처방식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로 인한 외상성 사건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자신의 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일에서 의미를 경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긍정 정서의 유발과 같은 적응적인 심리 작용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라 할 수 있다(Folkman, 1997). 이처럼 경찰관의 PTSD에 대한 적응적인 대처 기제로서 일

의 의미는 탄력성과 PTSD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되나, 탄력성이 일의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박은혜와 이민규(2016)의 연구에서 탄력성은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등과 같은 인지적 대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김고은과 양난미(2016)의 연구에서는 탄력성이 삶의 의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두 탄력성이 일의 의미에도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탄력성과 PTSD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의 매개 역할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면, 탄력성은 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도 자신의 일이 지닌 긍정적인 의미를 찾도록 촉진하며, 일의 의미를 자각할수록 PTSD 증상 수준은 낮아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적 차원의 대처 외에, 환경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활용하는 대처방식도 개인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의 한 형태(전경구 등, 1994; Amirkhan, 1990)로서 중요하다. 앞서 Amirkhan(1990)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그리고 PTSD의 발병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APA, 2013; Herrman, Saxena, & Moodie, 2005).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외부로부터 도움과 지지가 제공되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고통의 경험은 줄어들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된다. 개인은 발달과정 속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역사회 등 다

양한 대상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해 나가는데, 조직 구성원으로서 직장인에게 조직은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관의 경우 특수한 상황, 즉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외상성 사건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살펴본 가족, 친구 등에 초점을 둔 사회적 지지가 아닌 조직의 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지지하는 선행 연구로, 박경련(2020)은 경찰관의 트라우마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직무 관련 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차원에서의 지지를 조직으로 구체화하여 PTSD의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지원인식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조직 구성원의 헌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안녕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직원의 인식을 의미한다(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 & Sowa, 1986). 조직지원인식을 측정하여 수행된 558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조직지원인식은 직무 만족도, 직무 효능감 등과는 정적 상관을, 소진이나 직무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urtessis et al., 2017).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외상을 경험한 장병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회복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장재현과 이기학(2013)은 사후 조사 과정에서 군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거나 대우받지 못했다고 느낀 경험이 장병들에게는 이차적인 외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찬주와 조윤오(2018)의 연구에서는 PTSD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찰관 중 자살 생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조직지원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Clark, Distelrath, Vaquera, Winterich와 DeZolt(2015)의 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은 직무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조직지원인식이 PTSD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탄력성과 조직지원인식 간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부재하나, 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잘 지각한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들(김에스터, 김정규, 2019; 김희영, 정봉교, 2016; 손은일, 송정수, 2012; 안보배, 박세영, 2014; Hirai et al., 2020)과 이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탄력성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적인 대처 기제를 촉진하는 개인의 능력이라는 점을 토대로 탄력성이 조직지원인식에도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탄력성 수준이 높은 경찰관은 힘든 업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이라고 더 잘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PTSD 증상 수준은 낮아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 간의 관계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정하고, 경험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김근호 등(2019)이 수행한 일의 의미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 조사에서, 일의 의미와 관련된 여러 변인 중 조직지원인식이 일의 의미에 선행하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들이 확인되었다. 일의 의미의 근원에 대해 개념적으로 설명한 Rosso, Dekas와 Wrzesniewski(2010)는 조직에 소속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일에서 의미를 경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서아림, 정예슬, 손영우(2018)는 조직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을

지지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체성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일의 의미에 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일의 의미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일의 의미 수준을 향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직이 조직원에게 실질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조직지원인식이 높을수록 일의 의미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경찰관의 탄력성과 PTSD 간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조직지원인식이 각각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이들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이 외상성 사건에 노출된 이후 심리적 고통에 대응하기 위해 발휘하는 개인적 능력인 탄력성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적응적인 대처 기제로서 개인적 요인인 일의 의미와 환경적 요인인 조직지원인식이 각각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조직지원인식이 일의 의미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김근호 등, 2019)를 토대로, 탄력성이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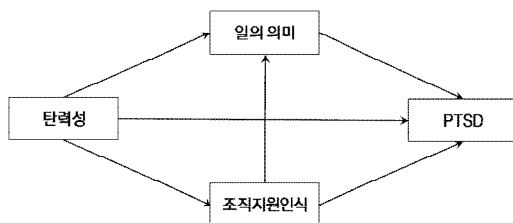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상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경찰관의 PTSD 증상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 PTSD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탄력성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일의 의미가 매개하는가? 넷째, 탄력성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조직지원인식이 매개하는가? 다섯째, 탄력성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고, 오프라인은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 경찰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8년 7월 26일부터 2018년 9월 5일까지 총 6주이며,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안내, 비밀보장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자료 활용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하여 설문이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715부를 배부하고 591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2.7%). 회수된 591부 중 (1) 외상성 사건의 경험을 전제로 하는 DSM-5의 진단기준을 고려하여(APA, 2013) 직무상 외상성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21명, (2) 한 번으로 응답하거나 측정 변인 항목에서 결측치가 있는 14명의 설문지는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n=555)	남성	453	81.6
	여성	102	18.4
결혼상태 (n=551)	미혼	182	33.0
	기혼	365	66.2
	이혼	4	0.8
학력 (n=551)	고등학교 졸업	110	20.0
	전문대 졸업	72	13.1
	대학교 졸업	336	61.0
	대학원 졸업 이상	21	3.8
	기타	12	2.1
계급 (n=550)	순경	117	21.3
	경장	113	20.5
	경사	143	26.0
	경위	154	28.0
	경감 이상 기타	22 1	4.0 0.2
근무관서 (n=552)	파출소	97	17.6
	지구대	68	12.3
	경찰서	303	54.9
	지방청 기타	72 12	13.0 2.2
기능 (n=555)	생활안전	209	37.7
	수사	82	14.8
	형사	31	5.6
	과학수사	18	3.2
	교통 기타	47 168	8.5 30.2
상담경험 (n=554)	있다	35	6.3

주. N=556.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최종적으로 총 556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453명(81.6%), 여성이 102명(18.4%)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38.45세(표준편차 = 8.28)였으며, 현재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평균 11.63년(표준편차 = 8.52)이었다.

측정 도구

직무상 외상성 사건 목록

연구 참여자들의 직무상 외상성 사건의 경험, 즉 경찰관이 직무수행 도중 경험했던 외상성 사건의 종류, 빈도 그리고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방식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권용철(2012)의 경찰관 직무사건 목록을 연구자가 확대하여 사용하였다. 이 목록은 신성원(2006)과 이옥정(2010)이 Thomas-Riddle(1999)의 목록을 한국 경찰 실정에 맞게 각각 한글로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권용철(2012)이 다시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권용철(2012)의 경찰관 직무사건 목록의 30개 문항에 2개 문항을 추가하여 총 32개 문항으로 ‘직무상 외상성 사건 목록’을 구성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본인이 근무 중 흉기에 의해 부상을 경험”,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의 사망 현장 목격”, “동료 경찰관의 자살 사실 청취” 등이 있다. 새롭게 추가된 문항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근무 중 시민 등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 1개 문항과 DSM-5의 진단기준을 고려하여 “범죄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 내용 청취” 문항 1개이다. 이 목록은 외상성 사건의 경험 유형을 직접 경험, 목격, 청취로 구분하며, 직접 경험 11개 문항,

목적 13개 문항, 청취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2개 사건 목록에 대해 연구 참여자는 사건별로 경험 유무를 표시하며, 경험한 적이 있다고 표시한 외상성 사건의 개수를 합하여 직무상 외상성 사건 종류의 경험 빈도를 측정하였다. 개수의 총합이 클수록 직무상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력성

연구 참여자들의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주환(2011)이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검사-53(Korean Resilience Quotient-53: KRQ-53)을 권혜림과 주재진(2017)이 경찰관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타당화한 ‘경찰공무원 회복탄력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 지표는 총 3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자기조절능력 10개 문항, 대인관계능력 9개 문항, 긍정적인 태도 13개 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이다. 하위요인별 예시 문항으로, 자기조절능력은 “어려운 일이 닥친 경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 대인관계능력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긍정적인 태도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 등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권혜림과 주재진(2017)의 연구에서 모든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84 이상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조직지원인식

연구 참여자들의 조직지원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현선, 양현철, 박동건(2013)이 한글로 번안한 ‘단축형 조직지원인식 설문지(Shortened version of the Survey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SPOS)’를 사용하였다. 이는 Eisenberger 등(1986)이 개발한 조직지원인식 설문지(Survey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SPOS) 문항 중 Eisenberger, Fasolo와 Davis-LaMastro(1990)가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들로 선별한 것이다. 이 설문지는 총 9개 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이며, 연구 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우리 회사는 나의 복지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 등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조직원이 조직을 지지적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현선 등(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정우열과 이수창(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일의 의미

연구 참여자들의 일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Steger 등(2012)이 개발한 일의 의미 척도(The Work and Meaning Inventory: WAMI)를 최환규와 이정미(2017)가 한글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일의 의미 척도(Korean version of Working as Meaning Inventory: K-WAM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 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이며, 연구 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

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의미 있는 일(직업)을 찾았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개인적 성장에 기여한다고 본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안다.” 등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신의 일이 지닌 의미를 자각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환규와 이정미(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PTSD

연구 참여자들의 PTSD 증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Weathers 등(2013)이 개발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체크리스트-5(PTSD Checklist-5: PCL-5)를 김종원 등(2017)이 한글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글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체크리스트-5(Korean version of PTSD Checklist-5: PCL-5-K)’를 사용하였다. PCL-5-K는 DSM-5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침습 증상(진단기준 B) 5개 문항(번호 1-5), 지속적인 회피(진단기준 C) 2개 문항(번호 6-7), 인지 및 감정의 부정적 변화(진단기준 D) 7개 문항(번호 8-14),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진단기준 E) 6개 문항(번호 15-20)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이다. 예시 문항으로는 “그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불쾌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릅니까?”, “그 스트레스 경험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 또는 감정을 피하십니까?” 등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직무수행 중 경험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떠올리며 지난 한 달 동안 과거 스트레스(직무상 외상성 사건으로 인한) 경험이 일으킨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0점부터 4점의 리커트 척도(0점:

아님, 4점: 아주)로 평정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PTSD 증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원 등(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이지영 등(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이었다.

통제 변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종속 변인인 PTSD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 그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변인으로 ‘나이’,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개수(이하 사건 개수)’, ‘외상성 사건의 경험 유형(이하 경험 유형)’을 설정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경찰관이 외상성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PTSD 증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련, 2020; Sherwood et al.,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연구 참여자가 지금까지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그 충격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안적으로, 먼저 근무 연수가 길어질수록 외상성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할 잠재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나이’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노선미, 김은아, 2017; 양경미, 오창홍, 박정환, 2015). 다음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할 당시까지의 외상성 사건 종류의 실제 경험 빈도를 고려하고자 ‘사건 개수’를(권용철, 유성은, 2013; 이옥정, 지영환, 2010; 한보람, 김정규, 2014), 마지막으로 경찰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면서 외상의 충격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험 유형’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김자혜, 김정규, 2013; 양경미 등, 201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앞서 DSM-5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직무상 외상성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자료와 주요 변인을 측정하는 항목에 결측치를 포함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556명의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v3.5)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탄력성과 PTSD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v3.5) macro 모델 6번을 이용하였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결 과

직무상 외상성 사건 경험

연구 참여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제시되어

표 2. 직무상 외상성 사건 경험의 기술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총 32개)	15.51	6.75	1	32
직접 경험(11개)	4.64	2.55	1	11
목격(13개)	6.07	2.49	1	13
청취(8개)	5.65	2.15	1	8

주. N=556.

표 3. 직무상 외상성 사건의 경험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직접 경험+목격+청취 모두 경험한 경우	482	86.6
직접 경험+목격 경험	18	3.2
직접 경험+청취 경험	2	0.4
목격+청취 경험	36	6.5
직접 경험만 한 경우	4	0.7
목격만 경험한 경우	12	2.2
청취만 경험한 경우	2	0.4

주. N=556.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총 32개의 외상성 사건의 종류 중에서 평균 15.51개(표준편차 = 6.75)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82명(86.6%)이 직접 경험, 목격, 청취의 형태로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DSM-5의 진단기준에 의한 PTSD 증상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설문에 응답

한 시점으로부터 지난 1개월 동안 경험한 DSM-5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PTSD 증상별 고통 수준에 대한 빈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참여자의 50% 이상이 지난 한 달 동안 전체 20개 증상 중 4개 증상, 즉 “직무상 외상성 사건의 반복적, 불수의적이고, 침습적인 고통스러운 기억”, “직무상 외상성 사건을 상징하거나 닮은 내부 또는 외부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극심하거나 장기적인 심리적 고통”, “직무상 외상성 사건에 대한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또는

표 4. DSM-5의 진단기준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PTSD 증상 경험 빈도

PTSD 증상	아님	약간	보통	많이	아주
B 외상성 사건의 반복적, 불수의적이고, 침습적인 고통스러운 기억	197	157	123	62	17
외상성 사건과 관련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꿈	358	92	83	18	5
외상성 사건이 재생되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해리성 반응	331	102	83	30	10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단서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강렬한 심리적 고통	157	129	104	104	62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단서에 대한 뚜렷한 생리적 반응	308	115	81	44	8
C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회피	220	126	114	65	30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외부 상황 회피	269	129	100	43	15
외상성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기 어려움	374	92	70	15	5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 혹은 세상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신념	326	87	96	37	10
외상성 사건에 대한 경험 등에 대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	396	75	61	22	2
D 공포, 혐오, 분노, 죄책감, 수치심 같은 매우 부정적인 감정 상태	326	107	76	38	9
주요 활동에 대해 현저하게 저하된 흥미 또는 참여	379	98	51	19	9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느낌	396	90	50	17	3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 어려움	408	78	48	20	2
E 과민 행동, 분노 폭발 또는 공격적인 행동	399	86	51	14	6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 행동	423	70	50	11	2
조금도 방심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변을 감시하거나 혹은 경계	289	142	78	40	7
과장된 놀람 반응	332	132	66	19	7
집중력의 문제	349	129	57	17	4
수면 교란	350	100	70	27	9

주. N=556.

감정을 회피”, “직무상 외상성 사건에 대한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외부적 암시(예, 사람, 장소, 대화, 행동, 사물, 상황)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인해 ‘약간’ 이상의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극심한 심리적 고통” 증상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29.9%가, “외상성 사건에 대한 기억, 생각 또는 감정을 회피”하는 증상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16.9%가 ‘많이’ 수준 이상으로 고통스럽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외상성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느낌”,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 어려움”,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민감한 행동과 분노 폭발”,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과 같은 5가지 증상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71% 정도가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고통스럽지 않았

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종원 등(2017)이 제시한 PTSD 절단점(37점)을 근거로 하였을 때,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서 55명(9.9%)이 PTSD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기술통계분석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12에서 1.27까지 분포하여 연구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탄력성은 조직지원인식($r=.29, p<.01$), 일의 의미($r=.58,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 변인인 PTSD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표 5. 기술통계량 및 상관계수

	나이	사건 개수	경험 유형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	PTSD
나이	-						
사건 개수	.47**	-					
경험 유형	.26**	.58**	-				
탄력성	-.03	.03	.02	-			
조직지원인식	.10*	-.04	-.09*	.29**	-		
일의 의미	-.02	-.03	-.07	.58**	.51**	-	
PTSD	.17**	.37**	.15**	-.20**	-.19**	-.24**	-
평균	38.44	15.51	-	3.43	3.82	3.50	0.72
표준편차	8.28	6.75	-	0.46	0.95	0.68	0.74
왜도	0.33	-0.12	-	-0.34	-0.24	-0.16	1.27
첨도	-0.80	-0.66	-	0.89	0.86	0.22	1.22

주. ‘경험 유형’은 범주형 변인(직접 경험+목격+청취 3가지 방식으로 외상성 사건에 노출: 1, 그 외: 0); * $p<.05$, ** $p<.01$.

보였다($r=-.20, p<.01$). 조직지원인식은 일의 의미와는 정적 상관을($r=.51, p<.01$), PTSD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9, p<.01$). 일의 의미는 PTSD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24, p<.01$). 그리고 종속 변인인 PTSD와 통제 변인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탄력성과 PTSD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우선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PTSD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변인들의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1.33에서 1.89까지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 5의 상관분석 결과와 여러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PTSD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나이’, ‘사건 개수’, ‘경험 유형’을 매개효과 분석 시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탄력성과 PTSD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

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변인 간 상대적인 영향력을 도식화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첫째, 탄력성은 PTSD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 p<.001$). 둘째, 탄력성은 조직지원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0, p<.001$). 셋째, 탄력성과 조직지원인식은 모두 일의 의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7, p<.001; \beta=.37, p<.001$). 마지막으로 탄력성과 매개 변인인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가 PTSD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탄력성과 일의 의미는 PTSD에 모두 유의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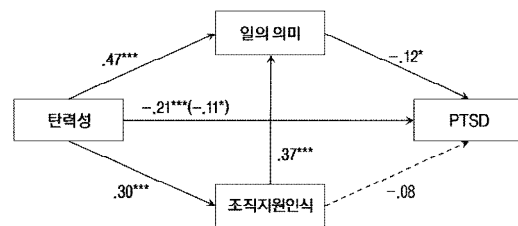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주. 모든 회귀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괄호 안은 매개 변인을 통제했을 때의 표준화 회귀계수;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 $p<.05$, *** $p<.001$.

표 6. 탄력성과 PTSD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SE	β	t	F	R ²
1	PTSD	탄력성	-.34	.06	-.21	-5.56***	32.90***	.19
2	조직지원인식	탄력성	.62	.08	.30	7.55***	18.98***	.12
3	일의 의미	조직지원인식	.26	.02	.37	11.29***	98.65***	.47
		탄력성	.69	.04	.47	14.58***		
4	PTSD	일의 의미	-.13	.05	-.12	-2.42*	25.34***	.21
		조직지원인식	-.06	.03	-.08	-1.94		
		탄력성	-.18	.07	-.11	-2.42*		

주. * $p<.05$, *** $p<.001$.

적 영향을 미쳤으나($\beta=-.11, p<.05; \beta=-.12, p<.05$), 조직지원인식이 PTSD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탄력성이 PTSD에 미치는 영향($\beta=-.21, p<.001$)보다 매개 변인인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가 추가되었을 때 탄력성이 PTSD에 미치는 영향($\beta=-.11, p<.05$)이 감소하여, 탄력성과 PTSD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탄력성과 PTSD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첫째, 탄력성이 조직지원인식을 거쳐 PTSD로 가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탄력성이 일의 의미를 거쳐 PTSD로 가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탄력성이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를 순차적으로 거쳐 PTSD로 가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탄력성과 PTSD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의 단순매개효과와 조직지원인식과 일

의 의미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탄력성은 PTSD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8, 95\% \text{ Biased-corrected CI}=-.3294 \sim -.0342$).

논 의

본 연구는 경찰관의 탄력성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PTSD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경찰관의 PTSD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탄력성과 PTSD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가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서 PTSD로 진단 가능한 경찰관의 비율은 9.9%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미국 경찰 과학수사대의 PTSD 증상을 측정한 연구에서 나타난 9.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Rosansky, Cook, Rosenberg, & Sprague, 2019). 반면 우리나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이지영 등

표 7. 탄력성과 PTSD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ootstrap 추정치		95% 신뢰구간 (95% Biased-corrected CI)	
	효과 크기	SE	하한값	상한값
직접효과(탄력성 → PTSD*)	-.18	.07	-.3294	-.0342
탄력성 → 조직지원인식 → PTSD	-.04	.02	-.0940	.0045
탄력성 → 일의 의미 → PTSD*	-.09	.04	-.1888	-.0012
탄력성 → 조직지원인식 → 일의 의미 → PTSD*	-.02	.01	-.0523	-.0003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번; *유의한 경로.

(2017)의 연구에서는 참여자 중 PTSD로 진단 가능한 비율이 17.3%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율 산출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김종원 등(2017)이 제안한 37점을, 이지영 등(2017)은 33점을 절단점으로 적용함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이외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는 DSM-IV의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제작된 한국판 사건 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을 사용하여 PTSD 증상을 측정하였고, 일부는 한국어로 변환된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들은 PTSD의 핵심 증상을 ‘침투’, ‘회피’, ‘과각성’ 등 3개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PCL-5-K는 최근 개정된 진단기준을 반영하여 앞서 측정한 3개의 핵심 증상 외에도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를 추가로 측정한다는 데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DSM-IV의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제작된 측정 도구를 사용한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PTSD로 진단 가능한 비율만 놓고 봤을 때 나타난 차이는 연구에 참여한 경찰관이 경험한 외상사건의 종류, 빈도, 강도 등의 차이가 일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노선미, 김은아, 2017).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모두 한 번 이상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자의 86.6%에 해당하는 482명은 외상성 사건을 직접, 목격, 청취 등 모든 형태로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관이 현직 복무 중 여러 가지 외상성 사건에 다양한 형태로 노출될 수 있으며, 연차가 오래될수록 외상성 사건의 경험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충격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관의 PTSD에 대한 심도 있는 이

해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 PTSD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이중 종속 변인인 PTSD는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PTSD 증상 수준은 낮다는 결과와 일치하며(남병섭, 김사라형선, 2017; Rosansky et al., 2019), 개인이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조직지원인식과 매우 유사한 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지각할수록 PTSD 증상 수준은 낮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김성환, 2018; de Terte, Stephens, & Huddleston, 2014; Rosansky et al., 2019). 그리고 PTSD와 일의 의미 간의 부적 상관관계는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본 연구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군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밝혀진 직무 스트레스와 일의 의미 간의 부적 상관(김혜원 등, 2017) 그리고 살인 피해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Zakarian, McDevitt-Murphy, Bellet, Neimeyer와 Burke(2019)의 연구에서 보고된 PTSD와 의미부여(meaning making) 간의 부적 상관은 모두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탄력성과 PTSD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일이 지닌 의미를 자각하는 수준이 높아지며, 일의 의미를 자각할수록 PTSD의 증상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외상성 사건에 직면했을 때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나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김고은, 양난미, 2016; 김

보라, 신희천, 2010; Folkman, & Moskowitz, 2000), 이로 인해 PTSD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오히려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이혜지, 강영신, 2017; Boden, Bonn-Miller, Kashdan, Alvarez, & Gross, 2012). 또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미 부여가 적응을 이끌어 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한 Park과 Folkman(1997)의 이론적 가정을 일 맥락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직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외상성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찰관이 탄력성을 발휘하여 일의 의미를 자각하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직무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외상성 사건은 경찰관의 심리적 항상성을 파괴하는 위협 요소로,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경찰관은 내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탄력성을 발휘하여 사건의 여파에 대처하게 된다. 이때 경찰관은 자신의 일이 지닌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직업 현장에서 경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한다. 그리고 임무 완수에 따른 성취감이나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통제감 등은 의미 있는(meaningful) 일 경험과 결합하여 더 큰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 경험 과정은 외상성 사건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것은 감소시키고 오히려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일의 의미를 자각하는 것은 외상성 사건으로 인한 부적응 증상을 덜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찰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찰관의 독특한 대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탄력성과 PTSD의 관계에서 조직지원 인식은 매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이옥정과 지영환(2010)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외상성 사건 경험과 PTSD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즉 심리적으로 외상을 남길 수 있는 힘든 업무 상황에서, 탄력성이 높은 경찰관이 조직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처자원으로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PTSD를 예측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상성 사건의 경험에 있어 경찰관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환경적 보호요인인 조직지원인식 수준은 향상되지만, 조직지원인식 수준의 향상이 PTSD 증상 수준을 낮추는 데에는 다른 매개하는 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경찰 조직 내에서 개인의 문제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노출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지지하는 체계의 부재 등과 같은 조직문화와 연관 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직업 특성상 경찰은 남성적이고 강인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경찰관은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개방할 경우 낙인효과(stigma effect)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직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박재풍, 2016; 이지영 등, 201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찰관이 조직의 지지를 인식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이 PTSD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질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지영 등(2017)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연구에 참여한 경찰관이 외상성 사건이나 여러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경험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담 혹은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성 부재’, ‘스스로 해결’, ‘주위의 시선’,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 어려운 조직문화’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경찰 개인과 조직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탄력성과 PTSD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력성이 높은 경찰관이 외상성 사건을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업무에 전념하여, 자신의 일이 지닌 긍정적인 의미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PTSD 증상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외상성 사건은 경찰관이 통제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담당 경찰관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우선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탄력성이 높은 경찰관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 뛰어나 사회적 관계에서나 더 넓게는 조직과의 관계에서도 잘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조직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는 탄력성이 높은 직장인이 사회적 지지를 더 잘 지각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손은일, 송정수, 2012; 안보배, 박세영, 2014). 나아가 조직지원인식이 일의 의미에 선행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김근호 등(2019)이 수행한 일의 의미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2009-2018년) 조사에서 조직지원인식이 일의 의미의 선행변인임을 여러 연구가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결과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직무상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경찰관의 탄력성이 PTSD에 이르는 경로에서 일의 의미를 경유하는 경우에만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일의 의미가 직무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PTSD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적 기제임을 의미하며, 상담 장면에서 이에 초점을 맞추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력성이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를 순차적으로 거쳐 PTSD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조직지원인식과 PTSD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른 변인의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섯째, 탄력성이 PTSD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관의 탄력성이 PTSD의 발병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대표적인 보호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노선미, 김은아, 2017; 임혁, 박외병, 2015; McCanlies, Mnatsakanova, Andrew, Burchfiel, & Violanti, 2014). 권혜림과 주재진(2017)의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재직 기간과 직급, 연령대에 따라 탄력성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 조직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재직 기간이 5-10년, 경장과 경사, 40대인 집단의 탄력성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직관리 차원에서 탄력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탄력성을 증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상담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탄력성이 PTSD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로 경찰관의 탄력성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PTSD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평가 대상자의 거부감이 적을 수 있고 비교적 간편해서 시행하기가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김주환(2011)이 청소년에서부터 60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한 것을 권혜림과 주재진(2017)이 경찰관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는 현지점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탄력성을 측정하고 타당화한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경찰관의 탄력성을 측정하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권혜림과 주재진(2017)의 연구와 본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척도는 크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인 자기조절능력,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인 대인관계능력, ‘미래가 비교적 밝다고 여기는 태도’인 긍정성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요인들을 고려하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정서조절 프로그램 활용의 한 예로, 이경숙, 박진아, 김명식(2017)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서, 생각, 신체 및 감각 조절하기 등에 초점을 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하였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분노통제력은 증진되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 중 업무 현장에서 1주일간 경험한 나의 정서 상태를 감정 카드에 적어보기, 정서적·인지적 대처 행동 역량 증진을 위한 활동 등은

경찰관의 일상적 직무수행 중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해 볼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또한 유용할 수 있다. 예컨대 최송원과 김희숙(2020)은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MBTI 결과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성격 차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을 연습하거나 갈등 해결 방법을 세워 보는 등의 활동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군 조직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경찰 조직의 구성원인 경찰관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상미와 조용래(2017)는 외상 경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편지 쓰기, 삶에서 긍정적인 기억 적어보기 등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 긍정심리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의 탄력성 증가와 외상 후 적응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토대로 경찰관에게 적합한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규 임용된 경찰관이나 심리적 외상의 이슈가 없는 경찰관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선제적 예방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탄력성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가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이후 힘들어하는 경찰관과 상담을 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PTSD에 대한 탄력성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유의하지만, 탄력성이 외상 경험 이전에 형성된 비교적 안정된 개인의 특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Allen, 2010), 개입의 초점을 탄력성에 두기보다는 매개 변인인 조직

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에 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가 PTSD의 근접 요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자는 경찰관 내담자가 자신의 일에서 현재 어떤 의미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일의 의미를 찾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이때 먼저 마음챙김(mindfulness)에 기반을 둔 개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육영숙(2018)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기반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양적, 질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마음챙김 요소들은 경찰관이 외상성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 이에 반응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갖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호흡 명상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평온함을 느끼는 데 효과적인데, 이 방법은 일상생활에서도 실행하기 쉽다는 점에서 경찰관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경찰관이 내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마음챙김 기법을 통해 심리적으로 여유를 갖고 안정을 찾게 되면 인지적으로도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의 의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육영숙, 2018).

보다 직접적으로 일의 의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현재 맡은 업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돕는 개입을 시도해 볼 수 있다(Grant, 2008). 이때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 자체가 지닌 속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이를 조명하는 과정이 일에서 의미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조직 차원에서도 자신의 업무가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한 부분으로서 중

요한 일이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으로부터 보호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돕는 것 역시 일의 의미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 하나의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상담 장면에서는 경찰관 내담자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하지만 경찰 조직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의 개입 방법으로 글쓰기 치료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현아(2011)는 PTSD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외상 경험자 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매개로 한 글쓰기 치료를 실시한 후 두 명의 참가자 모두 외상 경험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PTSD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또는 비상 근무와 같은 경찰 직업상 특수한 근무 형태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인터넷을 활용한 글쓰기 치료는 상담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에 치료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효과적인 개입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직업적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의 PTSD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

둘째, 경찰관의 PTSD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다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외상성 사건의 경험 빈도, 충격 정도 등과 같이 임상적 함의가 비교적 적은 요인과 PTSD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PTSD의 보호요인이자 변화 가능한 요인으로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의 역할을 확인한 점에서, PTSD 경찰관 상담 실체에 활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의 임상적 함의를 실제 경찰관들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셋째,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PTSD의 발병이나 증상을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탄력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경찰관의 PTSD 증상을 완화하는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동안 PTSD에 대한 탄력성의 긍정적인 역할은 지속해서 강조되어 왔지만 경찰관의 PTSD에 탄력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경찰관의 PTSD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관의 탄력성과 PTSD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 PTSD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탄력성과 PTSD의 하위요인들, 즉 DSM-5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침습, 지속적인 회피, 인지 및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등과 같은 핵심 증상에 따라 어떠한 관계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PTSD로 진단 가능한 경찰관의 비율이 9.9%로 나타났으나, 이는 훈련받은 전문가의 임상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의 자기 보고식 설문만으로 PTSD 증상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경찰관 PTSD 임상군에 바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PTSD로 진단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가 반복 검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경찰관의 탄력성이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조직지원인식과 개인 내적 보호요인으로 일의 의미를 매개로 하여 외상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결과를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외상 사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적응 수준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Calhoun과 Tedeschi(2013/2015)는 외상 후 성장 모델(post-traumatic growth model)을 제안하며 개인이 외상 경험 후에 분투하는 과정을 거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는 현상을 설명하였는데, 이들의 주장에 근거해 볼 때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는 경찰관이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PTSD를 넘어서서 더 긍정적인 궤적을 그리는 외상 후 성장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PTSD와 함께 외상 후 성장을 또 다른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통합적 모형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8, 9, 18). 경찰의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 확대 [보도자료].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에서 검색
경찰청 (2020). 2020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고영선 (2012, 12월). 법 시행현장을 가다: 경찰이 건강해야 국민도 건강. 국회보, 553, 62-65.
- 고자인, 강경아 (2015). 보호직공무원의 소명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일의 의미와 경력몰입의 매개효과.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4(3), 194-203.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 <https://www.law.go.kr/법령/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검색>
- 권용철 (2012).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용철, 유성은 (2013).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3), 649-665.
- 권혜림, 주재진 (2017). 경찰공무원 회복탄력성 지표 타당화 및 측정. 한국경찰학회보, 19(4), 245-273.
- 김고은, 양난미 (2016).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삶의 의미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127-145.
- 김근호, 장지현, 김성혜, 조아로, 장원섭 (2019). “일의 의미” 실증연구 동향: 2009~2018년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1(1), 79-101.
- 김보라, 신희천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17-136.
- 김사라 (2019).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경험과 직무스트레스 극복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7(1), 125-147.
- 김성환 (2018). 경찰공무원의 회복탄력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2), 69-89.
- 김세경, 이동훈, 장벼리, 천성문 (2015). 고위험공무 직업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재활심리연구, 22(2), 393-416.
- 김에스더, 김정규 (2019). 감사성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2), 451-468.
- 김자혜, 김정규 (2013).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한국경찰연구, 12(3), 27-50.
- 김종원, 정혜경, 최진희, 소형석, 강석훈, 김동수, 문정윤, 김태용 (2017). 월남전 참전노인에서 한글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체크리스트-5의 정신측정학적 특성. 대한불안학회지, 13(2), 123-131.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고양: 위즈덤하우스.
- 김혜원, 유재은, 우정희 (2017). 직업군인의 소명의식, 일의 의미,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25(1), 30-36.
- 김희영, 정봉교 (2016).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2(4), 183-204.
- 남병습, 김사라형선 (2017).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8(6), 1-15.

- 노선미, 김은아 (2017). 경찰 과학수사요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영향요인. *한국간호과학회*, 47(1), 39-48.
- 박경련 (2020). 해양경찰·경찰공무원의 외상 (trauma) 관련 국내 연구 동향.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6(4), 327-335.
- 박은혜, 이민규 (2016). 자아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과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3), 623-640.
- 박재풍 (2016). 경찰 트라우마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8(2), 71-98.
- 배점모 (2013).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 및 우울 간의 관계 비교 연구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277-307.
-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2017).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부찬주, 조윤오 (2018).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7(4), 105-132.
- 서아림, 정예슬, 손영우 (2018). 잡크래프팅과 과업정체성이 일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조직지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1(1), 149-173.
- 손은일, 송정수 (2012). 심리적 자본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5(6), 3953-3975.
- 신성원 (2006). 경찰공무원의 일상적·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성원 (2012).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8(4), 237-260.
- 신성원 (2017). 경찰관 자살 실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171-172.
- 신용일 (2019).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식과 조직성과 사이에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경찰, 국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3(1), 368-408.
- 안보배, 박세영 (2014). 직장인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직무만족과 소진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지지 지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3), 497-517.
- 양경미, 오창홍, 박정환 (2015).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1), 116-128.
- 유재두 (2013). 외상 경험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대처형태와 PTSD와의 관계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5(1), 183-203.
- 육영숙 (2018). 마음챙김 기반 신체-심리 운동 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PTSD) 증상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9(4), 57-73.
- 은헌정, 이선미, 김태형 (2001). 일 도시 지역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역학 조사. *신경정신의학*, 40(4), 581-591.
- 이경숙, 박진아, 김명식 (2017). 보육교사의 보육직무 스트레스 관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79-101.
- 이옥정 (2010).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이옥정, 지영환 (2010).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외근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2(4), 173-203.
- 이정선, 서영석 (2014). 직무소진과 직무만족의 관계: 일의 의미와 업무환경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1109-1129.
- 이정현, 김옥주, 남윤영, 신정하, 이희봉, 김지애, 심민영 (2015). 경찰공무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기질 및 성격 특성의 관계. *대한불안학회지*, 11(1), 61-68.
- 이지영, 임재호, 서수연 (2017).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3), 149-176.
- 이혜지, 강영신 (2017). 상실에 따른 애도 반응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와 영적 대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6), 623-643.
- 임혁, 박외병 (2015). 경찰관의 외상사건과 PTSD의 관계에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연구*, 14(3), 181-210.
- 장경문 (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143-161.
- 장재현, 이기학 (2013). 외상경험에 의한 심리적 어려움과 회복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장병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2), 1145-1164.
- 장현아 (2011). 심리적 외상에 대한 인터넷 매개 글쓰기 치료의 효과: 사례 연구. *인간이해*, 32(2), 71-88.
- 전경구, 김교현,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1994).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1), 114-135.
- 정우열, 이수창 (2016). 조직 공정성과 경찰의 범죄억제효과성 간의 관계 - 조직지원인식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11(4), 253-291.
- 정현선, 양현철, 박동건 (2013). 직장 유연성이 신입사원급 직장인들의 이직의도와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성장 균형, 조직지원인식의 매개 효과 및 셀프리더십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6(1), 149-176.
- 최송원, 김희숙 (2020). MBTI활용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직업군인의 자기수용, 자존감 및 타인수용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9(1), 64-72.
- 최환규, 이정미 (2017). 한국판 일의 의미 척도(K-WAMI)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1-25.
- 탁진국, 서형준, 김혜선, 남동엽, 정희정, 권누리, 김소영, 정일진 (2015). 일의 의미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3), 437-456.
- 한보람, 김정규 (2014).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3), 531-548.
- 한상미, 조용래 (2017). 긍정심리개입이 외상경험 대학생들의 심리적 건강 및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6(2), 223-241.
-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스트레스상황 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대처양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23-143.
- 황인희, 이영호 (2012).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외상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115-1138.
- Agaibi, C. E., & Wilson, J. P. (2005). Trauma, ptsd, and resilie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6(3), 195-216.
- Allan, B. A., Dexter, C., Kinsey, R., & Parker, S. (2018). Meaningful work and mental health: Job satisfaction as a moderator. *Journal of Mental Health*, 27(1), 38-44.
- Allen, J. G. (2010). 트라우마의 치유 (권정혜, 김정범, 조용래, 최혜경, 권호인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5년에 출판)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66 - 1074.
- APA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권준수, 김재진, 남궁기, 박원명, 신민섭, 유범희, 윤진상, 이상익, 이승환, 이영식, 이현정, 임효덕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3년에 출판)
- Boden, M. T., Bonn-Miller, M. O., Kashdan, T. B., Alvarez, J., & Gross, J. J. (2012). The interactive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cognitive reappraisal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6(1), 233-238.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1), 20-28.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15). 외상 후 성장: 상담 및 심리치료에의 적용 (강영신, 임정란, 장안나, 노안영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3년에 출판)
- Chadi, A., Jeworrek, S., & Mertins, V. (2016). When the meaning of work has disappeared: Experimental evidence on employees' performance and emotions. *Management Science*, 63(6), 1696-1707.
- Clair, M. E.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incidents, hostility and PTSD symptoms in police officers*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https://idea.library.drexel.edu>
- Clark, R. D., Distelrath, C., Vaquera, G. S., Winterich, D., & DeZolt, E. (2015). Critical-incident trauma and crime scene investigation: A review of police organizational challenges and interventions. *Journal of Forensic Identification*, 65(6), 929-951.
- de Terte, I., Stephens, C., & Huddleston, L. (2014). The development of a three part model of psychological resilience. *Stress and Health*, 30(5), 416-424.
- Eisenberger, R., Fasolo, P., & Davis-LaMastro, V. (1990).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employee diligence, commitment, and innov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1), 51 - 59.
- Eisenberger, R., Huntington, R., Hutchison, S., & Sowa, D. (1986).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3), 500.
- Folkman, S. (1997). Positive psychological states and coping with severe stress. *Social Science & Medicine*, 45(8), 1207-1221.

- Folkman, S., & Moskowitz, J. T. (2000). Positive affect and the other side of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6), 647-654.
- Friedman, M. J., Resick, P. A., & Keane, T. M. (2007). PTSD: Twenty-five years of progress and challenges. In M. J. Friedman, T. M. Keane, & P. A. Resick (Eds.), *Handbook of PTSD: Science and practice* (pp. 3-18).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Grant, A. M. (2008). The significance of task significance: Job performance effects, relational mechanisms, and boundary condi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1), 108-124.
- Green, B. L., Wilson, J. P., & Lindy, J. D. (1985). Conceptualiz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psychosocial framework. In C. R. Figley (Eds.), *Trauma and its wake 1* (pp. 53-69). New York, NY: Taylor & Francis Group.
- Herrman, H., Saxena, S., & Moodie, R. (2005). *Promoting mental health: concepts, emerging evidence, practice*.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 Hirai, M., Charak, R., Seligman, L. D., Hovey, J. D., Ruiz, J. M., & Smith, T. W. (2020). An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 severity among women with lifetime sexual victimization: The serial mediating role of resilience and coping. *Violence Against Women*, 26(15-16), 1966 - 1986.
- Janssens, K. M. E., van der Velden, P. G., Taris, R., & van Veldhoven, M. J. P. M. (2018). Resilience among police officers: A critical systematic review of used concepts, measures, and predictive values of resilience.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1-17.
- Kurtessis, J. N., Eisenberger, R., Ford, M. T., Buffardi, L. C., Stewart, K. A., & Adis, C. S. (2017).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 meta-analytic evaluation of organizational support theory. *Journal of Management*, 43(6), 1854-1884.
- Layne, C. M., Warren, J. S., Watson, P. J., & Shalev, A. Y. (2007). Risk, vulnerability, resistance, and resilience: Toward an integrative conceptualization of posttraumatic adaptation. In M. J. Friedman, T. M. Keane, & P. A. Resick (Eds.), *Handbook of PTSD: Science and practice* (pp. 497-520).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e, J. H., Kim, I., Won, J. U., & Roh, J. (2016).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s in Republic of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BMJ open*, 6, e009937. doi: 10.1136/bmjopen-2015-009937
- Lee, J. K., Choi, H. G., Kim, J. Y., Nam, J., Kang, H. T., Koh, S. B., & Oh, S. S. (2016). Self-resilience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police officer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8(1), 1-7.
- Luthans, F. (2002).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6), 695-706.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cCanlies, E. C., Mnatsakanova, A., Andrew, M. E., Burchfiel, C. M., & Violanti, J. M. (2014). Positive psychological factors are associated with lower PTSD symptoms among police officers: Post hurricane katrina. *Stress Health, 30*(5), 405-415.
- Park, C. L., & Folkman, S.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 115-144.
- Rosansky, J. A., Cook, J., Rosenberg, H., & Sprague, J. E. (2019). PTSD symptoms experienced and coping tactics used by crime scene investigator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64*(5), 1444-1450.
- Rosso, B. D., Dekas, K. H., & Wrzesniewski, A. (2010). On the meaning of work: A theoretical integration and review.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30*, 91-127.
- Seligman, M. E. P.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3-9).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herwood, L., Hegarty, S., Vallières, F., Hyland, P., Murphy, J., Fitzgerald, G., & Reid, T. (2019). Identifying the key risk factors for adverse psychological outcomes among police officer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2*(5), 688-700.
- Steger, M. F., Dik, B. J., & Duffy, R. D. (2012). Measuring meaningful work: The work and meaning inventory (WAMI).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322-337.
- Šverko, B., & Vizek-Vidović, V. (1995). Studies of the meaning of work: Approaches, models, and some of the findings. In D. E. Super & B. Šverko (Eds.), *Life roles, values, and careers: International findings of the work importance study* (pp. 3-2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Thomas-Riddle, R.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work stress, and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and cynicism in police offic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San Diego, California.
- Vogt, D. S., King, D. W., & King, L. A. (2007). Risk pathways for PTSD. In M. J. Friedman, T. M. Keane, & P. A. Resick (Eds.), *Handbook of PTSD: Science and practice* (pp. 99-115).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Weathers, F. W., Litz, B. T., Keane, T. M., Palmieri, P. A., Marx, B. P., & Schnurr, P. P. (2013). The PTSD Checklist for DSM-5 (PCL-5). Scale available from the National Center for PTSD.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rzesniewski, A., & Dutton, J. E. (2001).

Crafting a job: Revisioning employees as active crafters of their 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2), 179-201.

원 고 접 수 일 : 2021. 03. 26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7. 01

게 재 결 정 일 : 2021. 09. 02

Zakarian, R. J., McDevitt-Murphy, M. E., Bellet, B. W., Neimeyer, R. A., & Burke, L. A. (2019). Relations among meaning making, PTSD, and complicated grief following homicide loss. *Journal of Loss and Trauma*, 24(3), 279-291.

The Effect of Resilience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olice Officers: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Meaningful Work

Ji-Hyeon Lee

Soongsil University / Master's graduate

Seung-Min Park

Soongsil University / Professor

The present study sought to examine whether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meaningful work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officers' resilience and their PTSD. Data from 556 police officers who had experienced traumatic events at work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PROCESS macro. In addition, the bootstrapping method was us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TS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meaningful work. However,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meaningful work. Second, meaningful work mediated between resilience and PTSD. However, the simpl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as not significant. Third, the serial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meaningful wor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PTSD was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olice officers, resilienc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meaningful work,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